

Well-dazzling blue

시각예술

본 공연은 2013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이 공연은 B5금용고를 행복한 금융 문화예술,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일부 후원으로 실시됩니다.



최은희 작가 춤데뷔 35주년 기념공연

문의처

강성대학교 무용학과 Tel : 051_663_4964

시린샘 Well-dazzling blue

2013.9.17. 오후 7시30분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주최, 주관 ... 최은희무용단

후원



협찬 BS 부산은행

ENCOURAGEMENT



최은희 작가 데뷔 35주년 기념공연- 시린 샘

부산의 한국 창작품의 텃밭을 일구며 한국 무용 계승과 발전을 화두로 삼아온 대표적 춤꾼이자 안무가인 최은희 교수가 지난한 예술의 길과 교육의 길을 병행한 35년을 돌아보는 춤판을 열게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작가는 1982년부터 20여 회의 개인발표회만 아니라 50여 편의 창작품과 지역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1985년부터 '춤 배김새'를 창단하여 꾸준히 공연해오며 전통성의 보전과 창작의 열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1982년 제의식에 근간을 둔 초기 작품과 달리 최은희 작가는 다양한 무대 메커니즘의 활용과 한국 춤사위의 이미지화 등 내용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한국춤의 변화와 영역을 넓혀가는 데 천착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바쁜 일상의 걸음을 늦추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과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춤판 <시린 샘>에서 창조 순간과 예술의 향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간결한 몸짓으로 선보이는 작가의 춤사위는 우리 춤의 아름다움이 가진 정재의 이미지로 다가와 오감을 적셔줄 것이고, 정중동의 몸짓에서 쏟아내는 흐름은 잠시나마 우리 일상의 고단함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최은희 작가의 춤사위에 더욱 힘을 실어줄 여러 출연자들과 함께 육체의 언어로 펼쳐는 인생의 해석과 표현에 흠뻑 젖어보시기를 권하며 이 춤판이 최은희 작가 개인은 물론 부산, 나아가 한국의 춤판에 큰 족적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사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2013년 9월

부산에총회장 송영명



최은희 교수님의 작가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의 한국 창작춤 첫발을 일군 대표적인 무용가 최은희 교수는 1984년 경성대학교에 부임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국내외 춤 문화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989년부터 23년동안 '부산무용여름축제'를 무용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주축을 이루면서 현재의 '부산국제무용제'의 초석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 동안 열정적인 모습으로 꾸준한 창작작업을 해 온 예술가이자 교육자인 최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작가 데뷔 35주년 기념공연이 최교수님만이 갖는 독창적인 춤 세계를 감명의 무대예술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예술적 창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학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으로 훌륭한 인재양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신 출연진들과 공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최은희 교수님의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2013.9.

총장 송수진



무용 데뷔 35주년 기념공연에 부처

무대를 통해 삶의 지혜를 찾고 성장해 온 과정을 끊임없이 펼쳐보였던 지난 수 년 동안의 작업을 떠올려 봅니다.

70년대 대학 졸업 이후, 한국무용의 현대화를 화두로 삼고 탄생한 우리나라의 춤 단체의 효시인 창무회 창단 공연 '이 한 송이 피어남에...'에 첫 작품을 냈습니다. 그리고 82년 첫 개인발표회 '하지제'를 올렸고, 그 해 제4회 대한민국무용제에 작품 '뉘들임'의 안무로 대상을 받아 본격적으로 무용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 해 83년,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으로 취임하여 삶의 터전을 부산으로 옮겨왔고, 84년에는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부임, 교육자와 춤꾼으로서 작업을 병행한 것이 벌써 서른다섯 해를 외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순간도 춤을 떠난 인생, 춤을 떠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춤과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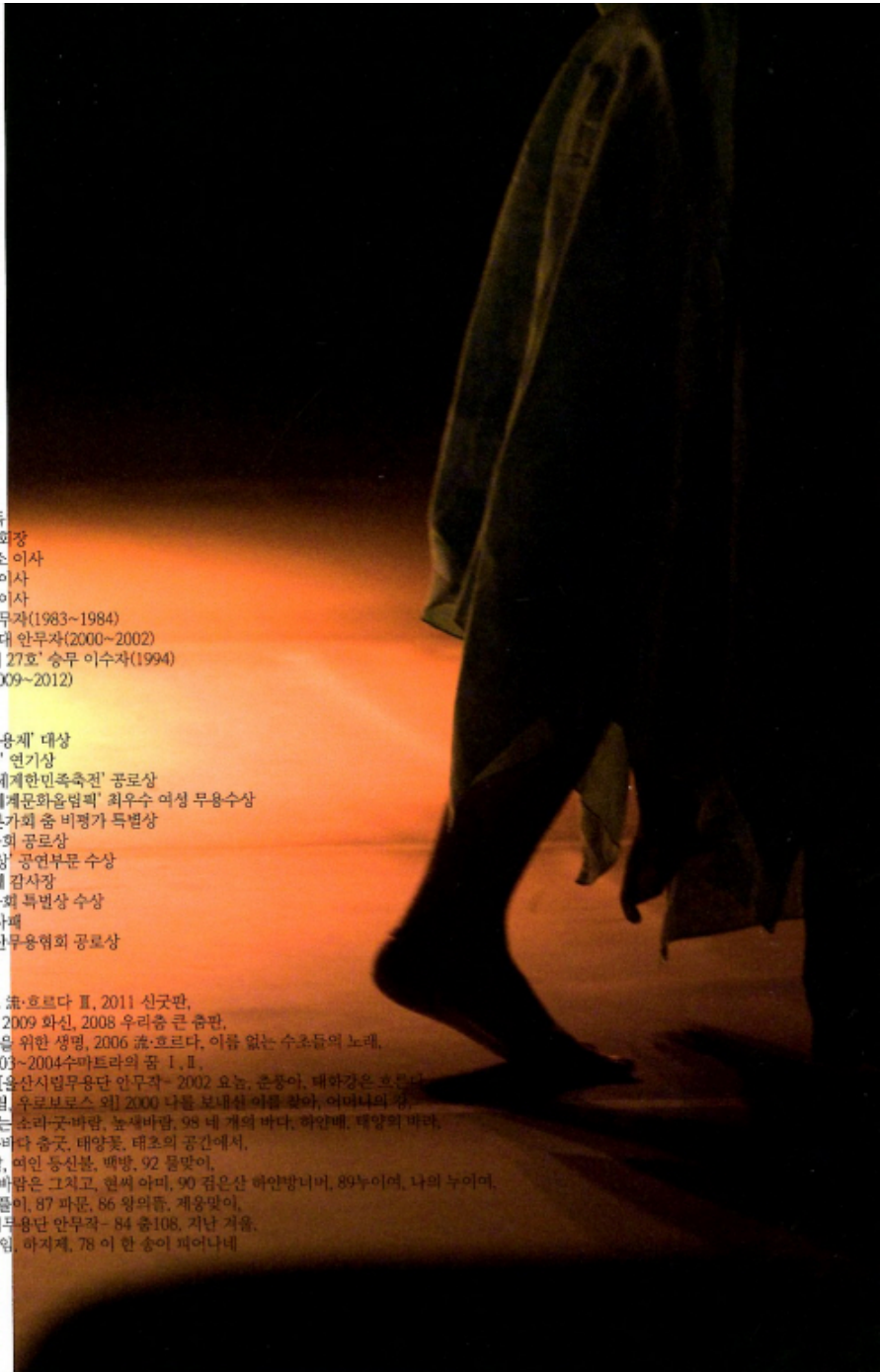
1985년, 경성대에서 무용학과 첫 졸업생을 배출하던 그 해, 부산에서 최초의 민간춤인 한국춤제인 <베김새>를 창단하여, 정미숙(현, 부산무용협회 부회장, 춤매 <베김새> 예술감독) 등 수많은 무용지도자를 배출해왔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 국·시립무용단원과 중견무용인으로 활약하는 수많은 제자들은 저의 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로서 저를 흐뭇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땀벌 속에서 유난히 매미 울음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여, 그 목마름을 풀어내고자 35주년 기념작으로 '시린 샘'을 올립니다. 함께 출연하는 제자, 하연화, 한수정, 박정은, 정현주, M-note 김동석과 함께 올린 만큼 그 목마름을 촉촉이 적셔주고자 합니다. 뜨거운 무대 위에서 생생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몸짓을 풀어내고, 세계 담겨 있는 느낌과 숨결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미 깊은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춤 작업에 도움을 주신 김종욱 교수님(음악), 백철호 교수님(미술)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도와주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와 배려로써 따뜻하게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최은희



춤 배김새 총감독
 (사) 한국춤회 부회장
 (사) 민족미학연구소 이사
 (사) 봉생문화재단 이사
 (개) 부산문화재단 이사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1983~1984)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자(2000~2002)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1994)
 부산 무용협회장(2009~2012)

-수상경력
 제 4회 '대한민국무용제' 대상
 제 4회 '전국무용제' 연기상
 광복 50주년기념 '세계한민족축전' 공로상
 제 2회 '국제 델피세계문화올림픽'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
 제 13회 한국춤평가회 춤 비평가 특별상
 2008 한국무용연구회 공로상
 제 21회 '봉생문화상' 공연부문 수상
 제 20회 전국무용제 심사장
 2012 한국춤평가회 특별상 수상
 2013 부산시창감사패
 2013 부산예총 부산무용협회 공로상

-주요안무작
 2013 시련섬, 2012 流·흐르다 II, 2011 신국면,
 2010 流·흐르다 II, 2009 화신, 2008 우리춤 큰 춤판,
 2007 옥숨오피-꽃을 위한 생명, 2006 流·흐르다, 이름 없는 수조들의 노래,
 2004 천동소리, 2003~2004수마트라의 꿈 I, II,
 2003 춤우는 바다 [울산시립무용단 안무작~ 2002 오늘, 흔들어, 배와강은 흐른다,
 2001 처용의 복음림, 우리보로스 외] 2000 나를 보내삼아를 찾아, 어머니의 길,
 99 세 천년을 부르는 소리꽃·바람, 눈새바람, 98 네 개의 바다, 하얀배, 태양의 바다,
 96 일흔의 번째, 춤바다 춤곳, 태양꽃, 태초의 공간에서,
 93 영산회상불보살, 여인 등신불, 배방, 92 물맛이,
 91 어두운 날들의 바람은 그치고, 연씨야, 90 검은산 하얀방니머, 89누이여, 나의 누이여,
 88 의술하다, 대들풀이, 87 파문, 86 왕의들, 재운맛이,
 85 뉘신,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작- 84 춤108, 지난 겨울,
 83 눈 외], 82 뉘들임, 하지재, 78 이 한숨이 피어나네

최은희(인무·춤)

부산의 한국 창작춤의 탄생을 일군 대표적인 춤꾼이자 안무가 최은희는 이화여대와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다. 1978년 국립국악원과 장삼문화연구원(1980~1982)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실기를 겸비한 뒤,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1983)과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영남 지역의 창작춤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 가운데 제16대 부산무용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규모의 무용 행사인 제20회 전국무용제를 부산이 유치, 역대 최고의 행사로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은희는 후학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 교육은 물론, 전국적으로 춤 문화에 이바지할 만한 인재를 키워왔다. 더불어 부산 최초의 민간 한국무용단체인 춤배 배김새를 창단(1985)하여 지역에 있는 우리 춤 언어를 찾기 위해 새로운 창작작업을 모색하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창작무용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국무용을 레퍼토리와 작업에 진력해 오고 있다. 해외 공연으로는 동서베를린 민속문화축제 초청공연, 북경 국제대학페스티벌, 인도네시아 국제무용페스티벌, 호주 시드니문화축제, 중국 길림예술대학 초청 공연, 2000년 새천년 대만 카오슝기와복예술제, 대마도 조선통신사행렬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아리랑축제에 20여 년 동안 12차례나 공연에 직접 참여해왔다. 또한 일본 마유즈미무용단 20주년 초청 아시아 한·중·일 민족무용교류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2회 델피세계문화올림픽 등에도 참가했다. 이렇듯 최은희는 20여 회 개인 공연, 50여 편의 창작품을 해왔으며, 23년 동안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주축으로 부산여성무용축제를 개최하거나 관련 국제 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국내외의 문화 행사 및 개인 무용예술 작업 등에서 해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연 및 행사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작품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여 한국창작무용의 영역에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최은희의 작품세계

이순영 (출판평론가)

우리는 이따금 별로 의미 없는 듯한 꿈을 꾸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굉장한 뜻이 얹혀있는 꿈이었을수도 있는데 말이다. 최은희의 무용이 바로 그런 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다. 그녀의 안무가 무용계에서 상을 받고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꿈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은 필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최은희의 안무와 춤이 처음 온목을 드러내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 글의 형식을 받고 나서 기역속에서 그 춤의 광경을 되살려 보려고 했을 때부터였다. 최은희는 겨울에 여름을,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는 여인이다. 그것은 춤을 때 기쁨을, 그리고 가을 때 슬픔을 되살린다는 이야기도 된다. <보들임>과 <하지계>가 일종의 한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예술이란 결국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누구보다도 풀어야 할 것이 많다면 몇몇 것도 누구보다 많다는 뜻도 된다. 아직도 나이 어린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도 매력적인 것일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동식의 이른바 집단적인 무의식속에 축적되어 온 우리 공유의 말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표현해 내지 않고는 견딜수 없을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가 안무한 작품인 <하지계>의 프로그램에는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지난해 겨울이었나 봅니다. 차창밖에 흰새없이 비쳐 들어온 물이 오르려고 하는 나뭇들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며 갑고 또 갑고 좌쪽 갑고만 실은 내 내면의 용어리가 문득 솟구쳐 올라, 어느덧 무엇인가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막연히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송'을 구하고 그 고통과 괴멸에 갈들여질 것입니다. 부딪혀 오고 받아들여지기에 거부할 수 없는 서투른 몸짓의 말바꿈을 부끄럽게 여기며, 뜨거운 화염속에 빨갱게 떠오르려합니다."

겨울에 여름을 생각하는 여인-최은희는 풀려고 하면서도'갑고 또 갑고 좌쪽 갑고만 실다'고 말한다. 뜨거운 불길속에 탈강게 타오르려는 여인 최은희는 언제나 싸늘한 냉기로 외광하고 있다. 그 외광성의 냉기는 땅과 땅등을 태 버로스 물결이 일면서 냇물임의 열기로 달아 오른다. 그의<하지계>와 <보들임>은 스토리텔링의 <물체 계간>이 그렇듯이 문명의 가식을 벗어 던지고 그 감속한 곳에 아직도 숨쉬고 있는 말음으로 침지를 피하는 의식이다. 게르하르트 쉐하리아스의 "무용이란 결국 하나의 신화이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신화건 무용이건 같은 원류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은희는 바로 그 신화를 통해서 춤을 먹어가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프롤로그 <공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신화나 무속 또는 꿈은 모두 같은 언어, 즉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은희 또한 그 상징적인 언어로 한을 풀어나고 있다. 물론 그녀의 그 상징적인 언어는 아직 미숙하고, 얽혀있는 내부의 미로를 더듬으면서도 아직도 그 실증부의 핵을 짐작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춤은 음악과 장치와 서로 유리되어 회도는 것이 아니다. 음악속에 춤이 있고, 또 그 춤이 음악을 끌어내면서 무대가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되는 열기를 지니게한다. 그것은 최은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만다라의 도식을 무대에 펼쳐 갔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사상>1982년12월 중에서

작품의도

프랑스 고전주의 회가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샘'이 작품의 이미지다. 샘의 경행인 젊은 여인이 나신으로 물가에서 물 향아리를 들고 서 있다. 마치 일부러 쏟아버리려는 듯한 자세로 들고 있는 물 향아리에서는 자연의 근원을 뜻하는 맑은 물이 흘러 떨어지고 있다. 은은한 빛을 받으며 아름답게 빛나는 여인의 표정과 몸은, 흐르는 샘과 달리 건조하고 차가운 느낌을 발하는데 여기서 모티브를 잡아 전체 타이들이 시린 샘으로 잡게 되었다.

1장 '시린 샘'

조용한 물소리로 막이 열린다. 이 작은 흐름은 다양한 시작이다. 또한 멈출 수 없는 지속된 마음의 근본이자, 머무는 여인의 끝을 수 없는 사랑이다.

시리고 시려서 흐르고 흐름수록 아프다. 하지만 폭발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일정한 흐르는 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모습이오 기다림이자, 계속되는 시작이다.

2장 '붉게 타던 사막'

붉게 타던 사막이 있었다.

그 시작속에 일렁이던 많은 신기부가 있었고 그곳을 잡아채기 바쁘던 사람들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너온 사람에겐 그곳을 디디고 온 발자국이 남겨진다.

이내 다른 사람이 덮고 밟아 발자국의 흔적은 이름없는 사람들의 깃발음만 기록이 된다.

3장 '하얀 샘'

타오르기 시작한 모든 것들은 하얗게 남았다.

그러하여 그곳에선 색이 있는 것이 없는 하얀샘이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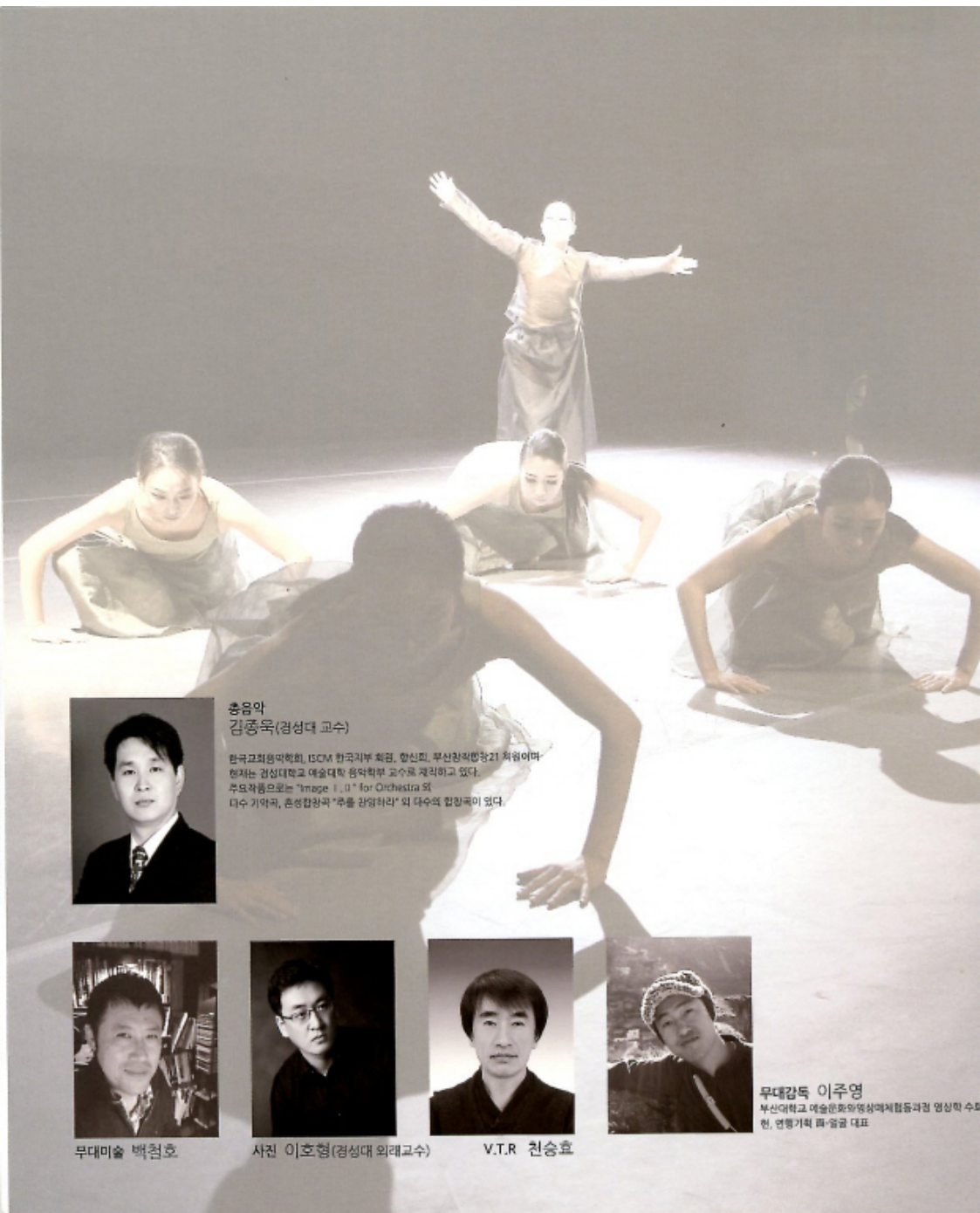
소통이란 이름아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발자국을 남기지만 이름 붙여지고 영혼 있는 발자국은 빛이나 될까.

이 공허한 발자국을 속에서 찾고 있다.

아무소리로도 존재할 수 없는 하얀샘에

시린 샘엔 흐르고 있다.





총음악
김종욱(경성대 교수)

한국교회음악학회, ISCM 한국지부 회원, 합선피, 부산권리협창21 회원이며 현재는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Image I, II" for Orchestra 외 다수 기악곡, 혼성합창곡 "죽을 관망하라" 외 다수의 합창곡이 있다.



무대미술 백철호



사진 이호형(경성대 외래교수)



V.T.R 찬승효



무대감독 이주영
부산대학교 예술문화경영심리치료학과전 임상의사
현, 연행기획 팀-유공 대표

STAP & DANCERS **出演**



하연화
춤 배김새대표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춤연구회이사



한수정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춤 배김새단원
원피프로빈스 컴퍼니대표



박정은
송산서림무용단 지도자



정현주
춤 배김새단원



김동석
원대무용단M-note 단원

제작진

안무_최은희 글_안주현 총음악_김종욱 음악_박수은, 김보민 소리_이아이 무대미술_백철호 무대제작_정현철,백승범 의상_노현주
사진_이호형 V.T.R_찬승효 무대감독_이주영 기획_김영경 총진행_정미숙(춤배김새 예술감독) 진행_손미란, 이규화

하늘연극장 _ 공연운영팀장 곽동현 무대기술파트 김병안 무대감독 최광욱 기계파트 허현영 조명파트 장은석, 오대영 음향파트 김병태, 김보빈 하우스매니저 시원 권아영



1 최은희 작품경향

한국 민족정신에 기초한 원초적 계의성(1978~1990)

작품의 저변에는 제의적인 것과 민족적 토대 작품을 구성한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하는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다. '남들인', '소리꾼', '현세아미' 등에서 한국인의 삶에 대한 제의적인 인식능리를 미술과 겨술, 삶과 죽음의 구조를 통해 표출되어가는 성에 대한 의미지로 보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그 형식과 내면적 인식을 시대적 감각에 맞추어 형상화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의 치열적 생존 경쟁과 대립적 관계에서 인간의 끝없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되풀이하여 느끼게 되는 현대인의 고뇌를 무속의례형식을 빌려와 표현한 '하지제', '제등맞이', '매들물어', '눈', '외출하다'.

溫故知新 속에 감추어 온 사회 의식(1990~2000)

최은희 교수의 춤의 힘은 사회성이다. 춤이 인간 정서를 표현한다는 일차적 성격을 넘어 사회를 반영하고 비판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주제의식이 춤에 나타나 있다. 모든 예술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듯이, 춤도 복잡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끌어안아 들인온 타당하다. '춤과 백김치'의 열개 한다.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통해 예술로서의 한국무용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정체성을 찾고자 정기간 및 다양한 기획공연을 쌓아가면서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였다. '누이며, 나의 누이며', '어두운 날들의 바람은 그치고', '천둥소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호흡으로 풀어 보는 생명과 자연(2000년~현재)

2000년 이후,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우리 고유의 호흡법에 의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명상적 기운, 용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인 흐름을 구하는 추구한다.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이 '숨'이다. '숨'은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호흡법은 몸 움직임의 에너지 원천인 단전호흡을 중심으로 하여 5단계의 몸 현상으로 진이하면서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신체 훈련법을 마련한다. 이를 없는 수호들의 노래는 한국 전통사상을 핵심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몸매 결합시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나를 보나신 이를 찾아', '이름없는 수호들의 노래', '여미나의 장', '流 흐르다' 등 각종 양식에 있어서도 무용은 종합예술인 만큼 인강분야와의 끊임없는 교류로 다각적이고 개방된 실험 의식 속에서의 작업이 필요함을 알고 소리, 영상, 무대장치, 다른 장르와의 만남 등에서 새로운 시도를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작업을 시도 하고 있다.

II 리뷰를 통해 본 최은희의 춤 세계

- 우리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춤으로 -

최은희 교수의 춤은 남다르다. 흔히 보는 화려한 율동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것을 담고 있는 모란한 표정도 아니다. 그의 춤 뿌리는 우리 민족적 전통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그의 춤 행위는 푸른 잎사귀들처럼 시대의 공기를 호흡하고 이 시대의 하늘로 열려 있다. 그가 피우려는 꽃은 지금 현재 삶이 꿈틀거리는 우리의 아픔이고 상처이고 분노 슬픔일 것이다. 이치호, '무용예술', 1993년 09월 10일

- 이승이 아닌듯한 유현한 기운 -

맑은 우주 종횡의 반의 중심이다. 평평해 바다의 가슴이 부른 대 보름 한 밤, 달이 바다의 그윽한 열정에 불심지를 달기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 이 해월(海月)의 고개를 구원한 춤사위에서 드디어 최은희 예술은 그 신비주의를 우주화 한다. 달빛에 홀리는 파도, 그리고 파도에 홀리는 달이 서로 밀고 끌면 그 선율은 언제 어느 무용수의 운명이 머리 내다 본 것일까? 혼자 있음과 우주의 광막을 같은 처음로 가능하려고 든 것이다. 그래서 귀가는 더한층 짙게 서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김영규, '무용예술', 1994년

- 한국적 여인상이 그리는 춤 -

겸허하고 진솔함, 그러면서도 지혜와 관용으로 항상 증용을 지키는 최은희... 한국의 여인상으로 표본이 될 수 그녀의 상성과 더불어 한국 춤과의 만남은 숙명적인 것이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다양하다. 무속의 신가가 너울거렸는가 하면 여인의 한을 넘어서 과거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민족의 의미를 실려 하저의 열기를 풀어냈는가 하면 정신대의 통탄을 부각시킨 역사 의식도 발휘했다. 공해를 고발하는가 하면 비방에 선 영혼을 위해 반체를 돌리는 수도 높은 작품들을 보여 주었다. 정용중 무용예술 3, 4월호 1996년

- 다양한 사유의 체험에 의한 창작 -

최은희는 머뭇속의 밝음을 찾고, 냉성속에 정염(情炎)이 있으며 항상 추수심과 신비성을 지면에 깔고 토속적인 정서를 풀어내는 춤꾼이라기보다 작가적 기질이 부르(浮彫)되는 춤꾼이다. 그는 한국 춤의 전통성과 정형성을 일단 해체하고 원초적 '무용인어'에서 출발하여, 풀근 표현의 자유로움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춤에서 인간의 정신정화 기능을 최대한 창작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순한 감정의 유희를 멀리하고 다양한 사유의 체험에 의해 창작을 지향하는 이른바 '말없는 창작'으로서 일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의 핵에는 감각적 충동만으로 이를 수 없는 우주적 창조력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품에 임한다. 정은영, '춤', 1999년 11호

- 경쾌한 흥감함과 서정적 회화성 -

최은희의 작품은 대체로 화사하고 상큼하다. 어두운 색조가 짙게 깔리다가도 빠른 후의 거리의 풍경처럼 어느새 맑은한 풍광 속에 숨은 운곽을 드러내고는 역광으로 빛을 분사시킨다. 길게 숨죽인 끝에는 호흡을 고루 분절 시키면서 으레 울어지는 화오리바람이 따르기 마련이다. 울날리는 꽃잎처럼 흐드러지다가 문득 멈추인 채 두 손 치켜들어 소리처럼 달맞은 양이라든가 휘둘러 활짝 펼친 두 팔로 활채형상을 짓는 것도 잠깐 것 뿐은 대화동굴인양 매미처럼 광동광동한 여름새라든지, 공 하나 한 발 굴러 땅을 차고는 전걸음으로 내달는 디딜새라든지, 이런 풍치는 달이 어드러가 땀과 푸는 것이어서, 전통춤에 여극은 없지만 전통적 풍미보다 차라리 선뜻한 현대적 감각을 내놓는다. 시원한 공간 활용조차 역동적인 동력선이기에 오히려 경쾌한 신묘법에 가깝다. 정은영, '백경애 10주년에 부쳐'

I. Eun-Hee Choi's Dance: Shifts of Trends

Primitive Ritualism based on the Spirit of the Korean Ethnicity (1978–1990)

Eun-Hee Choi's dance works have a unique underlying structure of which the major components are 'ritualism' and 'ethnic identity'. Characterized by the question of 'Where did I come from originally and where am I headed for ultimately?', they bring up the fundamental inquiry on the meaning of 'being' and 'life'. For instance, in her works such as 'Soul Reception', 'Sori Gool' (: exorcism with sounds), and 'Ms. Hyun The Amn', Eun-Hee Choi conceives the Korean people empirical logic and perception of life as a certain set of images that are portrayed in the process of 'present life versus afterlife' and 'birth versus death'. She, then, creates an interesting configuration of the images modified to the extent that they represent today's sense of contemporaneity in an on-stage environment. In other works such as 'Hajje', 'Je Ung Maj', 'Untying A Knot', 'The Swamp', and 'To Go Out', she describes human beings agony that recurs in the present world of rigorous, high competition and adverse relationships.

Learning the New from Reviewing the Past: Social Consciousness Hidden in the Concept (1990–2000)

Eun-Hee Choi's dance gains its strength from topics on sociality. It explicitly expresses her belief and motif that dance should play an active role as a representative and critic of society, on top of its basic nature as a portrait of the human sentiment. As all the art forms act as a mirror into the human society, dance, by necessity, has its own legitimacy in embracing the complex modern history of people.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for her long-time companionship with the dance troupe 'Baegimsae'. Through the group projects, Eun-Hee Choi has striven to find answers to the structural problems and other conflicts of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hile working on the creative exploration for a true identity of the Korean dance (e.g. Sister, Oh My Sister; The Wind of the Dark Days Is Over; A Rose of Sharon Is Abloom).

Life and Nature Interpreted Through Breathing (2000– Present)

Since 2000, Eun-Hee Choi has expressed a great interest in the issues of the environment and life and has sought to harmonize her dance rhythms with the unique and natural breathing techniques inherent in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along with other natural elements like meditation and a body flow. Breathing is a good exemplar of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smos as well as the main engine to keep one life working. A good deep breathing skill provides a holistic body training in transferring the air through five different stages of the body change. In the work 'A Song by Nameless Watergrass', for example, the four elements of earth, water, fire, and air become incorporated and expressed in the language of the body, of which lexicon reflects the traditional Korean perception of the world. A similar approach can be observed in works that include 'Looking For The One Who Sent Me Here', 'Song of A Waterweed Without A Name', 'The River of All Mothers', and 'Ryu as in To Flow'. Seeing dance as a complex yet generic art form, Eun-Hee Choi realiz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disciplinary experimentalism and tries various kinds of collaborative art projects while utilizing a wide range of media and equipment.

II. Eun-Hee Choi's Dance World Seen in Reviews

Turning Wounds and Pain of Our Times Into A Dance

The dance of Professor Eun-Hee Choi is simply out of the ordinary. The movements are not 'flamboyant-as is the case with numerous performances-or 'loud'with incomprehensible ideas and jargons. They have their roots deep in the Korean tradition and the leaves open in the sky of our today, breathing in the air of the current society and culture. The flower that she endeavors to see blooming through her dancing may be the very pain and wounds, anguish and sorrow of ours, which are still present and in motion. (Ji-Hoon Lee, in the magazine *Muyong Yesul* (: Dance Art), September 10, 1993)

Profound Atmosphere of Somewhere Outside This World

The moon is the center of the cosmic gravity at night. I wonder, is there anyone who has ever seen the moon put a fire on the quiet passion of the sea, when the aquatic belly is full of excitement at a full moon night? It is Eun-Hee Choi who makes the mysticism of the moon-sea interaction become a cosmic energy, solely through her dance movements. The waves get enchanted with the moonlight and the moon becomes charmed by the dancing waves; when, however, was a dancer fate ever able to foresee the mystic melodies of the interaction? It is an act of seeing the state of being alone as an equivalency of that of the vastness of the universe. Maybe, that is why the unearthly air remains thick in the performance.

(Neol-Gyu Kim, in the magazine *Muyong Yesul* (: Dance Art), in 1994)

A Dance Portrayed by an Archetype of a Korean Woman

Eun-Hee Choi, she is the person who knows how to maintain the tao of midway with her wisdom and insight, while keeping her humbleness and sincerity illuminating all the time. Her genuine character sets herself as a good role model for Korean women, and her meeting with the genre of dance must have been part of her predetermined course of life. Her dance shows a wide variety of dimension in many ways. Spiritual music dances along once and, another time, the stage gets filled with an awe and, even, a horror by going beyond the level of 'Han' (: apprehension and grudge interpreted in the traditional Korean contexts); she gives out the heat of mid-summer at one stage and expresses a sharp sense of history at another, with the issue of the wartime sex slavery (having taken place in the Japanese colonization); she raises questions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 air pollution, or she performs a rite on the altar, praying for the lost souls. Her performances, after all, are high in both the spirit and the artistic level. (Yong-Jong Jeong, *Muyong Yesul*, March and April Issues, 1996)

Art Creation through Diverse Experience of Contemplation

Eun-Hee Choi knows how to discover brightness in the dark, embed a heart of passion in the icy coolness, and, especially, bring her creative nature into relief, rather than relying on the typical expression of the local sentiments based on the repertoire of incantation and mysticism. She initiates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on the conventionalism and conformities of traditional Korean dances to commence her choreography with a most basic form of dance-language, and pursues the sheer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out the course of creation. This means that Eun-Hee Choi attains the ability of taking the function of spiritual purification into the realm of artistic creation for the best effects of it. She, also, demonstrates a good deal of consistency in her full 'attentiveness' as an artist who seeks to prevent from a simple emotional entertainment and, instead, explores the multiple dimensions of contemplation, conducive to diverse creativity in her art works. Most of all, she engages in her dance work with the strong belief that there exists more to learn and utilize in the cosmic creativeness than in emotional impulses and that such fundamental element must reside in the very core of an art work. (Soon-Young Jeong, in the magazine *Chum* (: Dance), November Issue, 1999)

Pleasant Weightiness and Lyric Pictoriality

The Art works of Eun-Hee Choi are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overt colorfulness and delightful light-footedness. For instance, there is a moment when thick, dark hues set in on stage. But, then, a hidden figure reveals the silhouette in a clear scenery, so clear that a clean street after the rain gets reminded, and it projects glares into every direction under the counter-light. The time to silence a long breath is usually followed by a set of even breath-by-breath segmentation, which is very likely to end up with a storming tornado. Her movements are once like fluttering petals that come down along the wind and, then, change to a clapping motion with the hands stretching in the air or to a crane with the arms turning and reaching to the sky. They, soon, transform to a fondling skipping motion rather tied like a new stub of an oriental apricot tree, and, then, to another stepping motion of letting a foot stomp, like a stamp, once and scurrying away. These are the movement that can make us heated up in excitement and pleased in fondling, then relieved and refreshed in a form of closure and loosening up, and, because of that, they show a fresh and brisk sense of contemporaneity, rather than a traditional flavor, while staying within the realm of the traditional dance. Even her far brisk way of using the space appears analogous to cool, light line-drawings (of Chinese calligraphy) for it is such a dynamic power that she creates in it.

(Hee-An Chae, in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Baegimsae Dance Troupe)